# 광주시의회 파행 딛고 원구성 마무리

## 운영위원장 이경호·예결위원장 송형일·행자위원장 김익주
## 4실 6국 3본부 62과 광주시 조직개편안 본회의 통과

광주시의회가 23일 전반기 원구성을 최종 마무리하고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체의원 2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 출마한 이경호(민주당·북구2) 의원을 찬성 22표, 무효 1표로 민선 8대 초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의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의원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예결위원장에 송형일(민·서구3) 의원, 그리고 윤리위원장에 신수정(민·북구3)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예결특위·윤리특위를 위원들도 뽑았다.

이로써 시의회는 개원 3주 만에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모두 마치게 됐다. 전반기 의장에는 김동찬(민·북구5), 부의장에는 장재성(민·서구1), 임미란(민·남구3) 의원이 지난 11일 당선됐다.

또 행정자치위원장에 김익주(민·광산1), 환경복지위원장에 박미정(민·동구2), 산업건설위원장에 황현택(민·서구4), 교육문화위원장에 김학실(민·광산3)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김 의장은 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장재성 부의장은 6대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 황현택 위원장은 7대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김익주 위원장은 4대 광산구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민선 7기 광주시 조직개편안도 광주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2018년 정부의 현장인력 증원계획’(146명)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처리했다.

시는 조직개편에 따라 3실 6국 3본부 58과에서 4실 6국 3본부 62과로 1실 4과가 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을 문화와 경제 부문을 전담하는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변경했다. 일자리경제국을 일자리경제실로, 사회통합추진단의 광주형일자리, 노동정책기능과 일자리정책과를 통합해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바꿨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서는 광주 민간공원 개발에 앞서 시민 공감대 형성,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종합검토,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갈등요소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형일(민·서구3) 의원은 23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공정·투명하게 진행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10개 공원 대상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광주시의 도시계획·학교시설·교통 대책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외한 공원에 대해서도 16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토지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민·관 갈등요소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남해안 오션뷰 명소 20곳 선정

## 고흥 금의시비공원·순천 와온해변 전망대 등

고흥 금의시비공원과 순천 와온해변 전망대 등 남해안 경관 명소 20곳이 선정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 7개 시·군 해안도로를 따라 해안 경관이 뛰어난 ‘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휴가철을 맞아 남해안 해안 경관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국제적 해안 경관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제주·부산에 이은 국내 제4대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했으며, 최우선 실행 과제로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를 선정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오션뷰 명소 20선에는 고흥군이 5곳으로 가장 많고, 여수시 3곳, 순천시 1곳, 광양시 1곳, 남해군 4곳, 통영시 3곳, 거제시 3곳이 포함됐다.

고흥 거금도 금산해안도로의 숨은 보물 ‘금의시비공원’은 전망대 뿐만 아니라 연계 산책로를 따라 몽돌해변까지 접근, 다채로운 조망이 가능하다. 녹동전망대는 소록대교와 녹동항을 조망할 수 있고, 더수연안길 어부림은 해안도로를 사이에 두고 천연어부림이 조성돼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흥의 다도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남열리 해안도로의 숨은 노변전망대 지붕없는 미술관, 우주여행처럼 짜릿한 다도해 특급 전망대이자 360도 파노라마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는 우주발사전망대도 명소로 뽑혔다.

여수 장척마을 갯가노을전망대와 가사리습지생태공원 방조제는 아름다운 여자만을 바라볼 수 있는 어촌마을 풍경의 전망 공간이며, 돌산공원전망대는 남도의 미항(美港) 여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다.

순천 와온해변전망대는 습지 경관의 다채로움을 더해주고, 광양 망덕포구는 섬진강 끝자락에서 강이 바다가 되는 고즈넉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 명소다.

이번 선정에는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 방문객 편의시설,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고려됐으며, 전문가의 현지답사와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휴가 동안 ‘남해안 오션뷰 명품 20선’ 사진 공모전도 개최한다. 인스타그램에 해안 경관 명소 20개 전망대를 배경으로 가족, 연인, 친구 사진을 올리면 심사해 포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션뷰 명소 20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남해안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좋은 길잡이는 물론 지역축제 및 주변 관광명소와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 국제교류 진흥조례 제정안
## 광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광주시의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 제정안이 2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 수립 ▲광주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운영 ▲국제문화교류 진흥사업 추진 ▲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광주시, 민간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교류 활동은 양적으로 늘었지만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이 미흡했다.

이 조례 제정으로 공공 및 민간이 안정적이고 활발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문병재 시 문화도시정책관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주시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연계 협력을 통해 국가·도시 간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한새봉·개구리논 환경훼손 없어요” 23일 광주시 관계자들이 일동초등학교 4학년 3반 교실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 공사와 관련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앞서 이들 학생들은 “일곡동 한새봉과 개구리논을 보호해 달라”는 편지를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보냈다.

# 무분별 남획…다슬기가 사라진다

## 지난해 전남 생산량 10t
## 2013년보다 66% 줄어

무분별한 남획과 환경 변화 등으로 섬진강 토종 다슬기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23일 전남해양수산관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다슬기 생산량은 10여 t으로 지난 2013년보다 66% 줄었다.

이는 다슬기 채취어가의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생태계 먹이사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다슬기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종자생산 연구에 들어갔으며 구례·곡성 섬진강 상류에 어린 다슬기 50만 마리를 방류했었다. 과학원은 24일에도 어린 다슬기 30만 마리를 구례 문척면과 곡성 압록유원지 일원에 방류한다.

주로 7월에 채취하는 다슬기는 영양이 풍부하고 숙취 해소 등 건강 보조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반딧불이 유충 먹이로,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산자원의 보고다.

최연수 원장은 “다슬기·황어 등 토산어종 방류는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생태·환경 보전 차원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섬진강 수산자원 보호·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 3급 4명 등 245명 승진 인사

## 역대 최대…승진자 비율 11%
## 조직개편 맞물려 대폭 늘어

광주시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3급 승진 4명 등 245명의 승진을 의결했다.

이날 인사위원회에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애리, 안전정책과 허기석, 예산정책관 송재식, 일자리경제국장지정대리 박정환 등 4명의 3급 승진이 의결됐다.

신임 김애리 부이사관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과 세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허기석 부이사관은 자치행정과장, 식품안전과장으로 일했다. 송재식 부이사관은 관광진흥과장과 유대회조직위기획부장을 맡았고, 박정환 부이사관은 미래산업정책관과 기업육성과장을 역임했다.

또 광주시는 정책기획관 김영선, 건축주택과 최상호, 감사위원회 이한국, 도로과 양영식, 안전정책관 정주형 용연정수사업소 김동운, 환경정책과 윤정식, 자치행정과 정동훈, 일자리정책과 최대범 등 18명의 4급 승진도 결정했다.

이 밖에 광주시는 5급 승진 51명, 6급 승진 100명, 7급 승진 63명, 8급 승진 9명도 함께 의결했다.

광주시가 245명을 무더기 승진 의결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 소방직을 제외한 시 전체 공무원이 22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승진자 비율이 11%에 달 한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시 공무원이 146명 늘었고 조직개편과 맞물려 인사요인이 대폭 늘어났다”며 “내년 열리는 세계수영대회 파견인원 등의 영향으로 승진자가 많이 늘어 직원들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24일 전보인사 발표를 하고 25일 임용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